BARUN

정답과 해설

원서 해부 노트 정답

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· Part 4 파이널

PART 3

실전 변형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

객관식 16문항(90점) + 서답형 1문항(10점)

배점: 4·6·9·11·12·13번 각 6.0점, 나머지 10문항 각 5.4점(합 90점) / 서답형 10점(부분 점수 없음)

번호	정답	해설
1	②	알맞은 덕을 알맞은 순간에 맞추고 의무를 다하라는 글. ③은 인내를 우위에 두어 'Neither role is superior'와 모순, ④는 글과 반대.
2	①	후계 선택 → 유력 후계자 디오스쿠리데스 → 그의 아들 타르소스의 제논. ④는 디오스쿠리데스가 지도자가 되지 못했으므로 오답, ②는 논리학 저술이라는 근거가 없음.
3	②	잊혔어도 필요한 때에 제 몫을 다했다는 요지. ①은 글과 반대(적게 썼음), ③은 글의 초점이 아님.
4	②	떠 있는 배 = 자리 잡아 가라앉을 위험이 없는 학파. ⑤는 '떠 있다'를 '표류'로 오독한 오답, ①은 반대.
5	②	『히에로니모스 반박』 = 싸움을 찾지 않되 찾아오면 응했다. ⑤는 반대, ①은 '집'의 표면 의미.
6	⑤	①~④는 Dioscurides(헌정 · 후계 기대 · 노쇠 · 아들), ⑤는 그의 아들 Zeno of Tarsus.
7	③	① 50년이 아니라 100년, ② 출생 연도 미상, ④ 수백 권을 쓸 필요가 없었음, ⑤ 후계자는 바빌론의 디오게네스(히에로니모스는 반박서의 표적).
8	③	그는 '열렬한 수호자조차 아니었다(nor a passionate defender)'. 나머지는 모두 일치.
9	④	make + 목적어 + 형용사 보어 → clearer(부사 clearly 불가). ① 대과거, ② 동격의 that, ③ 주격 관계대명사, ⑤ 주어 The choice(단수) → was.
10	④	(A) seem + to부정사, 앞선 일이므로 to have had (B) enough + to부정사 → to smooth (C) 뒤에 명사(steady hand)가 이어지므로 소유격 whose.
11	②	'우리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'는 앞말과 순환하는 역사에 맞으려면 교체 가능한(interchangeable) 조각이어야 한다. irreplaceable(대체 불가능한)은 반대. ③ presumptive(유력한)는 21권을 헌정받은 후계 후보에게 맞는 말.
12	①	잊히는 것은 스토아라면 신경 쓸 수 없는 일(something a Stoic can't care about) — 뒤의 '우리 통제 밖'과 '제 몫을 다했다'가 근거. ②·③·⑤는 글이 거부하는 평가, ④는 글과 무관.
13	②	'안정시키고 이어 가는 일' 뒤, 시점이 왜 중요했는지 For로 설명하는 문장 앞. ①은 the timing이 가리킬 내용이 아직 없다.
14	③	용기의 세 모습 → 알맞은 덕 → 둘째 제논의 임무로 이어지는 흐름에 에우리피데스 인용(4장 소재)이 끼어든다.
15	④	주어진 문장(다음은 누구인가) → (C) 스토아의 답 = 순환하는 역사 → (A) 그 믿음의 실례 = 또 한 명의 제논 → (B) '이 둘째 제논'의 출신과 아버지.
16	①	기껏해야 전환기(transitional) 인물이지만 나서지 않는(unassuming) 방식이 그때 필요했다. ②는 combative가 글과 반대, ③은 legendary가 모순.
서답형	CALMING	(1) C a hundred years (2) A Tarsus (3) L Dioscurides (4) M Eusebius (5) I False (6) N Hieronymus of Rhodes (7) G Diogenes of Babylon → C-A-L-M-I-N-G. 완성 단어 calming = 저자가 둘째 제논에게 붙인 말(a calming presence) — 자기 검증 장치. 함정: (1)에 B · O · Y, (2)에 P. Babylon(후계자의 출신지), (3)에 D. Chrysippus(스승이지 아버지가 아님), (7)에 R. Diogenes Laërtius(이름만 같은 기록자).

PART 4

파이널 — 손으로 복원한다

평가 2~3일 전.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,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.

4-1. 핵심 문장 12선 —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

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.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,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.

01 기원전 2세기 초에 스토아 철학은 백 년이 되었다. (At the turn of / a hundred years old)
→ **At the turn of the second century BC, Stoicism was a hundred years old.**

02 스토아의 핵심 신념 하나는 역사가 순환한다는 생각이다. (One of + 복수 명사 / 동격 that / cyclical)
→ **One of the central beliefs of Stoicism is the idea that history is cyclical.**

03 우리는 태초부터 상연되어 온 연극의 교체 가능한 조각들이다. (interchangeable / that has been playing since)
→ **We are interchangeable pieces in a play that has been playing since the beginning of time.**

04 그 역시 이름이 제논이었기 때문이다. (For + S V / too / be named)
→ **For he too was named Zeno.**

05 누가 그의 뒤를 이어 망토를 물려받을지는 그가 정할 몫이었다. (the choice of who ~ / his to make)
→ **The choice of who would take up the mantle after him was his to make.**

06 그 제논은 우주의 대화재를 의심했다고 한다. (is said to have p.p. / conflagration)
→ **That Zeno is said to have doubted the conflagration of the universe.**

07 그는 상황을 가라앉힐 만큼 딱 적당히 원만했다. (형용사 + enough + to V / calm things down)
→ **He was just agreeable enough to calm things down.**

08 용기가 언제나 싸움터로 돌진하는 것은 아니다. (not always(부분 부정) / rushing into the fray)
→ **Courage isn't always rushing into the fray.**

09 그것은 알맞은 덕을 알맞은 순간에 맞추는 문제였다. (a matter of -ing / match A to B)
→ **It was a matter of matching the right virtue to the right moment.**

10 그는 자아가 없었던 것 같다. (seem to have p.p. / ego)
→ **He does not seem to have had an ego.**

11 시점은 더없이 중요했다. (could not have been more + 형용사)
→ **The timing could not have been more critical.**

12 중요한 것은 그가 필요한 때에 제 몫을 다했다는 것이다. (What mattered is that / need to be done)
→ **What mattered is that he did his job when it needed to be done.**

4-2. 숫자 · 고유명사 복원표 — 보지 않고 채우기

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.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-4로 돌아간다.

항목	답
둘째 제논의 출생 / 출신 / 사망 연도	**미상(Unknown) / 타르소스(Tarsus) / 기원전 190~180년?(불확실)**
지도자가 된 시점 / 당시 학파의 나이 / 가르침의 계승 순서	**기원전 2세기 초 / 100년 / 제논 → 클레안테스 → 크리시포스**

항목	답
학파가 견뎌 낸 세 가지	도발(provocations) · 회의론자(doubters) · 다른 학파의 공격(attacks)
스토아의 핵심 신념(역사관) / 인간의 비유	역사는 순환한다(cyclical) / 교체 가능한 조각 · 태초부터 상연된 연극의 배역
후계자를 고른 사람 / 그의 가문 출신지	크리시포스 / 타르소스
유력 후계자 / 헌정받은 저작 수와 권수 / 물러난 이유 / 둘째 제논과의 관계	디오스쿠리데스 / 최소 여섯 저작 · 21권 / 너무 늙었거나 병약했거나 죽었을 것 / 아버지
둘째 제논의 의심을 전한 사람 / 그의 신분 / 의심한 교리	에우세비오스 / 기독교 저술가 / 우주의 대화재(conflagration) — 윤회
대화재 교리를 받아들인 첫 지도자 셋	제논 · 클레안테스 · 크리시포스
둘째 제논이 '아니었던' 것 / '이었던' 것	또 한 명의 아리스토(혁명가 · 교란자) · 열렬한 수호자 / 관리자(maintainer) · 행정가(administrator)
차분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(47쪽 ¶7 끝)	꾸준한 자세(steady bearing) · 공평한 손(even hand) · 차분한 존재감(calming presence)
용기의 세 모습	싸움터로 돌진(rushing into the fray) · 인내(endurance) · 내면 성찰(looking inward)
둘째 제논이 편을 든 두 사람 / 펴낸 책	클레안테스 · 크리시포스 / 『로도스의 히에로니모스 반박』
첫 제논 · 크리시포스 · 둘째 제논이 한 일(비유)	새 영토 개척 / 주먹을 날리고 막음 / 안정시키고 이어 가기(stabilize and carry on)
학파의 비유 / 실천가 수	떠 있는 배(a boat that floated) / 그리스 전역 수천 명
기울던 나라 / 떠오르던 나라 / 스토아가 떠난 곳의 별칭	그리스 / 로마 / 민주주의의 요람(the cradle of democracy)
둘째 제논의 후계자 / 그의 신분 / 그 전환이 연 시대	바빌론의 디오게네스 / 크리시포스의 또 다른 제자 / 스토아의 황금기(공화정과 철학의 융합 → 제국)
둘째 제논이 역사에 남은 방식 / 저자의 결론	기껏해야 전환기 인물(transitional figure) / 필요한 때에 제 몫을 다했다

4-3. 통합 사고 문제 — 4장과 5장을 잇는 자리

문제

4장에서 크리시포스가 어린 학파를 지키기 위해 '주먹을 날리고 막는' 싸움꾼의 역할을 맡은 일(41쪽 ¶2, 48쪽 ¶3)과, 5장에서 둘째 제논이 혁명가도 열렬한 수호자도 아닌 '관리자'로서 떠 있는 배를 안정시킨 일(47쪽 ¶7, 48쪽 ¶3)을 비교하여, 저자가 두 사람을 모두 옳았다고 보는 기준을 영어 한 구절(48쪽 ¶1의 표현)로 쓰고,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. (각 문장에 4장 또는 5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)

기준: The author judges both men by whether they matched _____.

기준: the right virtue to the right moment (알맞은 덕을 알맞은 순간에 맞추었는가)
근거 1 (예시): When Stoicism was still a fledgling school under attack, Chrysippus took up the thankless role of fighting to protect it, throwing punches and blocking some too.
근거 2 (예시): By the second Zeno's time the school was a boat that floated, so what it needed was not a fighter but a maintainer agreeable enough to calm things down and carry it on.
채점: 기준 구절(the right virtue to the right moment) + 두 인물의 역할을 각각 시대 상황과 연결해 근거로 들 것 + 4·5장 어휘를 포함할 것(fledgling, threw punches, maintainer, a boat that floated, stabilize, calming presence 등).